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 주일오전설교 | 자족하기를 배움

[빌 4: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 초기에, 빌립보 교인들은 그를 물질적으로 후원했으나(15-16절) 얼마 동안 중단했다가 다시 도움을 보내왔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다. 왜냐하면 그런 물질적 도움은 그들이 그의 복음 사역과 그 고난에 동참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또 그들의 선교 헌금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진실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였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이 그들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며(고후 8:8) 그들이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증거라고 말했었다(고후 9:13).

하나님께서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 성전 봉사의 일에 전담하는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쓰게 하셨다. 민수기 18:21,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또 레위인들의 십일조는 제사장들에게 드려 생활비로 쓰게 하셨다(민 18:28).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마 10:42), 또 심지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의 종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선행이 영생의 표가 된다고 말씀하셨다(마 25:31-46).

[11-12절]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족하는 생활 신조를 간증한다. 그것은 아마 그들의 물질적 후원에 대한 그의 기쁨이 그가 단지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님을 말하기

위해서이었을 것이다. 그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한다. 성도들이 전도자들을 생각하고 물질로 돕는 것이 선한 일이지만, 전도자들은 물질에 속박을 받지 않고 물질을 초월하여 자족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주께서는 제자들을 전도하려 보내실 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마 10:9-10).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복음 전파자들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 합당하지만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 자신은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증거하였다(9:12).

자족하는 생활은 전도자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성도들이 배워야 할 생활이다. 염려는 탐심에서 나온다. 참된 믿음은 세상의 모든 염려를 버리고 자족하며 살게 한다. 예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교훈하셨다(마 6:31). 사도 바울은 디모테전서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교훈했다(딤후 6:7-8).

자족하는 생활은 중세의 수도사들처럼 가난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족하는 삶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삶을 말한다. 우리는 배부를 줄도 알고 배고픔 줄도 알며,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길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의 세계가 있다. 그 세계의 영광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빈부 귀천의 삶에 대해 만족하거나 불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과 성도들의 의식주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으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보장하셨다(마 6:31-33).

하나님께서서는 애굽에서 나온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40년 동안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다(출 16:4, 35). 잠언 30:7-9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이다”라고 말했다. 행복의 필수적 조건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고 사랑과 평안이다. 잠언 15:17,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1, “바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신[고기]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므로 주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마 6:11).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탐욕도 염려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며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13-14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그리스도](전통사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운 환경여건에서도 낙심치 않고 만족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는 우리의 위로와 힘과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다(창 18:14).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고기 먹기를 원하며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1개월간 고기를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나이까라고 반문하는 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고 말씀하셨다(민 11:23).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다. 역대하 16:9는 “여호와와 그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했다.

이사야 2:22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고, 에스겔 7:19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예물[더러운 것]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

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죽하게 하거나 그 창지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됨이로다”고 말했다. 우리는 사람이나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않고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사 40:30-31). 주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성도들이 전도자들을 생각하고 물질로 돕는 일은 기뻐할 만한 선한 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다.

둘째로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배워야 한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욕심과 염려를 다 버리고 섬리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만의 지혜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현실의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

## 주일오후설교 **하늘 보좌의 광경**

[계 4:1]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나팔소리 같은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었다(계 1:10, 12). 본문은 어떤 이들이 잘못 생각하듯이 신약교회의 휴거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중에 천상의 광경을 보게 된 경위를 말하는 것뿐이다.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이란, 이미 1:19에서 말한 대로, 사도 시대 이후의 교회 역사와 세상의 종말 사건들을 가리킨다.

[2-3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섰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5:1에 그의 오른손에 책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은 이 사실을 더욱 확실케 한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므로 그의 본체는 아무도 볼 수 없으나 때때로 그는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여전히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와 녹보석 등 상징적인 말로 묘사되었다. 벽옥은 그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시며, 홍보석은 그의 공의와 심판의 엄위

하심을 나타내시고, 무지개는 그의 신실하신 공훈의 약속을 나타내시고, 녹보석은 그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을 나타내시는 것 같다.

**[4절] 또 보좌에 둘러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사도 요한은 보좌에 둘러 있는 24보좌를 보았다. 거기에는 24장로들이 앉아 있었다. 24장로들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 같다. 24라는 수는 구약교회의 12지파들과 신약교회의 12사도들을 가리키는 것 같다. 요한계시록 21:12, 14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열두 문 위에는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지손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고, 성곽의 열두 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었다. 또 24장로들이 입은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와 성결을 가리키고, 그들이 쓴 금면류관은 장차 교회가 누릴 존귀와 영광을 상징할 것이다. 우리의 소망과 영광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바라며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며 산다. 세상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태워질 것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5-7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켜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나타날 능력과 위엄을 보이는 것 같다. 또 보좌 앞의 일곱 등불, 곧 하나님의 일곱 영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지식을 나타낸다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영이시다. 그는 사람들의 모든 말과 행위를 다 아시고 그들의 은밀한 일들까지도 다 아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사도 요한은 또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 것을 보았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구약시대에 성전의 바다에 비교된다.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는 일을 위해 만든 것이었다(대하 4:6). 천상의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흠과 점 없는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네 생물은 천사들을 대표하는 것 같다. 그 생물들의 안에 눈이 가득한 것은 그들의 통찰력과 지식의 풍성함을 상징할 것이다.

그 네 생물들의 모습은 에스겔서의 묘사와는 다르지만(겔 1:10-11; 10:14) 그 상징하는 바는 비슷하다고 본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 사자는 불굴의 용맹스러움을 상징하며, 송아지는 온순함과 충성을 상징하며, 사람은 지혜를, 독수리는 쇠하지 않는 생명력과 민첩함을 상징할 것이다. 천사들은 악령들과의 전투에서 용맹스럽고, 온순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충성하며 지혜롭고 충명하며 민첩하며 쇠하지 않는 생명력을 가진다.

**[8-11절] 네 생물이 [둘레에]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그 안에](MT)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래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NASB, NIV)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생물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찬양하기를 힘썼다. 천사들의 모습은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천사들의 존재는 실재이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을 찬양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허무한 가사를 지절거리는 노래들을 미워하시나, 진리에 합한 노래들을 귀히 보신다. 물론, 찬양은 가사 뿐만 아니라, 곡과 리듬과 박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질서에 맞게 아름다워야 한다(시 96:9).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해야 한다.

24장로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져 드렸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렸다. 성도의 찬양의 근본적인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과 선행에 대해 상을 주시지만, 성도는 사실상 그런 상을 받을 만한 의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우리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천상에서도 고백해야 할 것이며 오

직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세상의 어둡고 불완전한 현실만 보지 말고 천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며 또 천국의 영광을 묵상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 온 우주의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엄위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천국의 영광도 그러하다. 고린도후서 4:18,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골로새서 3:2,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라.”

둘째로, 우리는 장차 의의 흰옷, 즉 죄성이 전혀 없는 영광스런 몸과 금면류관을 쓸 것을 감히 소망한다. 이것이 성도가 천국에서 누릴 복된 영광이다. 빌립보서 3:20-21,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로마서 8:18,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셋째로, 우리는 네 생물들의 덕, 즉 사자 같은 용맹, 송아지 같은 온순함과 충성, 사람의 지혜, 독수리 같은 쇠하지 않는 생명력과 민첩함을 배우기를 원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종들과 교회 직분자들과 성도들에게 오늘날에도 필요한 덕이다.

## 수요일 설교

### 측량줄 환상

[속 2:1-5]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 측량하여 . . . .

예루살렘 성은 전에 파괴되고 황폐했었다(왕하 25:9-10; 느 1:3). 그 성은 아직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와 살고 있고 미약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그 성은 장차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므로 성곽 없는 촌락처럼 될 것이다. 그 성에 살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성안의 집들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약교회시대를 가리킨다고 본다. 우리는 본문의 예언이 신약교회에서 성취되었다고 본다.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차고 넘친다(계 7:9-10). 하나님께서는 그 성의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시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실 것이다. 불성곽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나타낸다.

[6-9절]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 . . .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북방의 잇수르 나라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고 온 세상에 흩어짐을

당하였으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고 말씀하신다. 본문은 메시아의 사역을 보이는 것 같다.

그는 메시아께서 영광을 받은 신 후 즉 그가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그를 보내실 것이다. 온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말은 메시아께서 그의 제자들을 복음 전파자로 온 세상에 보내심을 가리킬 것이다(마 28:19; 막 16:15; 눅 24:47-48; 요 20:21; 행 1:8).

메시아께서 노략자들 위에 손을 움직이시면 그들은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복종할 것이다. 이것은 메시아의 구원사역을 가리켰다고 본다.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은 온 세상에 충만히 이루어질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 눈동자같이 여기실 것이다.

[10-13절] 여호와와의 말씀에 시온의 딸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 .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노래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신약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벧전 2:9).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해야 한다. 스기라는 또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세계복음화를 가리켰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수호와 그 견고함과 영광을 보아야 한다. 신약교회는 성곽 없는 성처럼 확장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불성곽으로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비록 지교회나 지역 교회의 현재의 작고 미미함이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온 세계교회와 구원 받은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을 보고 또 미래의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셨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심을 깨닫고 감사해야 한다. 주께서는 신약교회에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주셨다. 그러므로 신약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하나님의 복음,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귀중히 여기심을 깨닫고 감사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고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며 평안 가운데 거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 우리의 성화를 이루심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말아야 한다.